

공군 첫 참가 UAE '데저트 플래그' 성료

공군이 처음으로 참가한 '데저트 플래그(Desert Flag)'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랍에미리트(UAE) 공군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데저트 플래그에 참가한 공군 훈련단은 3월18일 훈련을 마무리한 뒤 귀국했다. 2월 26일 시작된 데저트 플래그는 블루·레드팀으로 나뉜 다국적 공군이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야간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이다. UAE 알 다프라 기지에서 열린 훈련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등 9개국 공군이 참여했다. 이집트, 튀니지 등 4개국은 참관국 자격으로 함께했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 5공중



기동비행단 C-130 수송기 1대와 조종사, 정비사, 화물의장사,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 공정통제사 등 30여 명을 투입했다.//

폴란드군 조종사 8명 우리 공군 비행교육 받는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한 폴란드군 조종사들이 약 6개월간 우리 공군에서 비행교육을 받는다. 공군은 3월 22일 1전투비행단(1전비)에서 폴란드 공군 조종사 4명의 입과식을 열고 FA-50을 원활하게 조종하도록 돕기 위한 비행교육을 시작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48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올해 2차례에 걸쳐 8명의 폴란드 조종사를 교육한다. 1차 4명은 오는 7월 21일까지, 2차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교육할 예정이다. 폴란드 조종사들은 FA-50 모체인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전술입문기 TA-50으로 운용법과 실전적 전투기술을 연마한다.

먼저 1전비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우리 공군 조종교관으로부터 T-50으로 비행이론, 공중조작 등을 11주간 배운다. 이후 16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간 TA-50을 활용해 공대공·공대지 전술훈련 등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전술입문과정(LIFT)을 소화한다. 이어 KAI로 이동해 1주간 FA-50 시뮬레이터로 비행숙달훈련을 한다.//

연세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창설·입단식

공군교육사령부는 2월 28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공군 학군단 창설 및 입단식을 거행했다. 유재문(소장) 사령관이 주관한 행사에는 김은경 연세대 교학부총장과 34대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최차규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 정책고문, 육·공군 학군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한 이병우(중령) 학군단장은 수여받고, 정예 공군인 양성 임무에 돌입했다.//



수여받고, 정예 공군인 양성 임무에 돌입했다.//

10전비, 부대창설 70주년 기념행사



공군10전투비행단(10전비)은 2월15일 부대 창설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두만 장군을 포함한 역대 비행단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시상식, 비행단이 제창, 공군 군악·의장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10전비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대한민국 최초 전투비행부대인 제10전투비행

전대를 모체로 한다. '승호리철교 폭격작전' '평양대폭격작전' '351고지 공격작전' 등 공군 3대 전승작전을 모두 성공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53년 2월 15일 비행단으로 승격됐으며, 1954년 11월 지금의 수원기지로 이전해 70년째 조국 영공수호 최선봉에서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1전비, 6만 시간 무사고 비행

F-15K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11전투비행단(11전비)은 무사고 6만 시간을 초과 달성해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1전비는 2월14일 이를 기념하는 비행안전 시상식을 공승배(소장) 공중전투사령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평소 비행 안전에 힘써온 대대와 개인 9명에게 각각 공군참모총장·작전사령관·전투사령관 표창을 수여했다. 11전비는 2018년 4월 6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 비행을 지속하



고 있다. 특히 11전비는 지난해 북한과 주변국 도발에 대응하고자 예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비행 소티(출격 횟수)를 운영했다.//

16전비 115대대, 12만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16전투비행단 115전투비행대대가 3월 20일 '무사고 비행 기록 12만 시간'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기록은 1994년 10월 20일부터 28년 5개월에 걸쳐 수립됐다.

특히 수출 낭보를 전하고 있는 국산 초음속 전술입문기 TA-50을 운용하며 세운 기록이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렸다는 데 의미가 크다.//

고 심정민 공군소령 흉상, 대구 능인고에 제막

조국 영공수호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고(故)심정민 소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제작된 흉상이 심 소령 모교인 대구 능인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졌다. 능인고는 1월13일 교정에서 순직 1주기(1월11일)를 맞아 심 소령의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심 소령은 2012년 능인고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공사)에 입교했다. 공사 64기로 임관한 그는 10전투비행단에서 F-5전투기 조종사 임무를 수행했다. 심 소령은 지난해 1월11일 경기 화성시에서 영공 수호 임무 중 기체 결함으로 추



락해 순직했다. 흉상은 능인고 동문 신홍식 사단법인 아트빌리지 이사장이 제작해 기증했다.//

한·일 확대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3월16일 “한국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정상은 23분간 소인수 회담을 진행한 뒤 곧바로 확대 회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 사회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회담에서 그간 정체된 한·일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셔틀외교’ 복원 등을 논의했다.//

2022 국방백서 “북한 정권·북한군은 적”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敵)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포함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은 20여kg 늘어난 ‘70여kg’으로 추정됐으며 추가 핵시설도 언급됐다. 국방부는 2월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

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격년마다 발간한다. 이번 백서는 지난 1967년 첫 발간 이후 25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발간이다. 2020 국방백서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적 표현이다.//

한·폴란드, 장관급 국방 정례협의체 운영



한국과 폴란드 국방 당국이 국방·방산 협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관급 정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동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올해 개최되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월 2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마리우슈 부아쉬작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유럽 및

한반도 안보정세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폴란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심화’를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국방·방산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다뤄졌다.//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2월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회의를 주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가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관계기관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부처, 광역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 국가방위에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국방부는 1월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투 등 계속되는 도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했다.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국 장관은 대한(對韓)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공동으로 재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

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비롯해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 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에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 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나갈 것을 확인했다.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동맹 간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도 이어가기로 했다.//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한미는 3월13일부터 3월23일까지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연습에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을 집중 펼쳤다. 이번 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최근에 일어난 전쟁·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올해 연습은 연합상륙훈련 등 과거 독수리(FE) 연습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특히 한미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전개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한미는 야외기동훈련 명칭을 ‘전사의 방패(WS·Warrior Shield) 연합 FTX’로 명명하기로 했다. WS 연합 FTX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한다.

특히, 한미공군은 연합연습 7일 차인 3월 19일 미국의 전략폭격기인B-1B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스텔스 전투기와 미공군의 F-16전투기도 참가했다.//

‘하늘의 전함’ 미 공군 AC-130J 한반도 첫 전개

미 공군의 AC-130J 고스트라이더(Ghostrider) 항공기가 한반도에 최초로 전개해 한미연합 특수작전 훈련에 투입됐다.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AC-130J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전략자산 중 하나다. 한미 장병들은 이 항공기를 활용해 전시를 가정한 적 핵심 시설 타격훈련을 펼쳤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3월21일 “한미 연례 연합 특수작전 훈련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을 했다”며 “특수전 요원에 의한 항공기 화력유도 훈련으로 전시 적 지역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했다”고 밝혔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특수부대가 항공지원원을 받아 적진 내부로 침투하는 일련의 특수전을 숙달하는 ‘실전적 공중 대 지상 다영역(Multi-Domain) 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KF-21 복좌 형태 시제 4호기 최초 비행 성공

KF-21 보라매 전투기의 복좌 시제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월20일 KF-21 시제 4호기가 11시19분 공군 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해 34분 동안 비행하고, 11시53분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다.

시제 4호기는 단좌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돼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좌기 형태다.

총 6대의 시제기 중 1·2·3·5호기는 단좌로, 4·6호기는 복좌로 제작됐다. KF-21 복좌기는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시제 5·6호기도 비행시험에 착수하면 향후 총 6대의 시제기로 비행시험을 전개해 비행 가능 영역을 확장하면서 항공기 성능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FA-50 말레이시아 수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9억2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FA-50 전투기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24일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FA-50은 고객 요구에 맞춰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이며, 초도 납품은 2026

년 진행될 예정이다. KAI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며, 동남아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FA-50 전투기 등 동남아 시장에 수출된 국산 항공기는 총 68대이며, 말레이시아 2차 사업까지 수출한다면 국산 항공기 수출 대수는 총 240대에 이른다.//

KF-21 보라매 첫 초음속 비행 성공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월17일 KF-21 시제 1호기가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시제 1호기는 오후 2시 58분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했다.

이어 3시15분경 남해 상공 고도 4만 피트를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음속(마하 1.0, 시속 약 1224 km)을 돌파했다.

KF-21은 지난해 7월 최초 비행 이후 현



재까지 80여 회의 비행으로 고도·속도 등 비행영역을 지속 확장시켜 왔다. 그리고 이날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코스 전면 개방



4월 2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전면 개방된다. 앞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행정안전부·환경부는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해 ‘DMZ 평화의 길’ 조성·운영에 대한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DMZ를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가 희망자들은 ‘평화의 길’ 홈페이지(www.dmwalk.com)와 걷기 여행 모바일 앱(APP) ‘두루누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1만원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

참가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지역특산품 등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 노선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DMZ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 지자체단체별 11개 코스다. 각 코스는 도보 구간과 차량 이동 구간으로 구성된다.//

2023 학군장교 통합 임관식



미래 호국간성이 될 육·해·공군과 해병대 신입 소위 3368명이 임무 완수를 위한 첫발을 함차게 내디뎠다.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군교)와 전국 116개 학생군사교육단(ROTC·학군단)은 2월 28일 2023년 학군장교 통합 임관식을 거행했다.

충북 괴산에 있는 학군교에서 열린 통합 임관식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각 군 주요 인사와 각 대학교 총장, 임관 장교 가족·친지, 지역주민 등 1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장교들은 각 군 병과별 보수교육을 거쳐 일선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防空체계 ‘근원적 허점’ 보완 급하다

권명국 (예 공군소장, 육사 33기, 전 방공포병사령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입 때 방공작전 긴급 상황을 고속지령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상황 전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군의 상황 판단 및 전파, 전력 운용 등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공자산을 통합한 합동 방공작전은 중앙방공통제소, 지상전술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 지휘통제 및 정보체계 등 국가방공체계 상호 간에 데이터망으로 연동돼 전군 방공경보 전파, 방공통제 명령 하달, 적정 무기 배당, 교전 지시 등의 전술 조치를 실시간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1군단 국지 방공레이더가 탐지한 항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부대의 전술 조치가 누락 또는 지연돼 교전 기회를 놓치고 우왕좌왕하다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높아진 2017년 이후 3축 체계를 국가방공체계의 모든 것으로 인식하고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개칭함으로써 유·무인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으며 견적필추(見敵必墜) 하겠다는 방공작전 대비 긴장감도 약해지는 등 방공포병사령부가 공군으로 전군된 1991년 이후 30여 년 동안 노출되지 않고 국가방공체계에 내재된 근본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실제 작전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 유·무인 항공기와 미사일 위협을 통합한 국가방공체계 차원의 지휘·전력·부대·병력 등 군 구조를 정밀 진단한 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

우선, 지역 방공을 맡고 있는 사단 예하 편제 방공부대를 제외한 수도권의 군단 예하 육군 방공단과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지휘통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방공작전 통제소 중심으로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찰 무인기는 과학기술과 소재의 발달로 인해 점차 소형화하므로 레이더 성능도 개량해야 하지만, 도시화한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 효과는 많이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무인기 대비 작전 개념도 포괄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촬영 등 정찰 활동을 방해하는 위장·소산(疏散) 등의 ‘소극적 방공대책’으로, 공격용 무인기는 정상적인 국가방공체계 속의 ‘적극적 방공대책’으로 세분화해, 점적지역 전방에서부터 방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탐지·추적·타격자산의 배치 위치 및 운용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기체계만 다룰 게 아니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운용 요원들을 숙련된 간부급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경로에서 북한이 보유한 유사한 무인기를 활용한 추적 훈련과 사격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상급 지휘관 책임 아래 평소 비상대기, 장비 관리, 불시작전 준비태세 점검 등을 통한 작전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드론도 군사작전 임무 수행 때는 통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유사시 작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 ‘국가방공체계 평가 검토 위원회’(가칭)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방공포병사령부 전군 후 30여 년간 노출되지 않은 국가방공체계에 내재한 근본 문제들을 종합 진단하고, 도출된 보완 요소들은 모든 과제에 우선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본 내용은 문화일보 2023.1.17.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정찰 무인기는 과학기술과 소재의 발달로 인해 점차 소형화하므로 레이더 성능도 개량해야 하지만, 도시화한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 효과는 많이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무인기 대비 작전 개념도 포괄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촬영 등 정찰 활동을 방해하는 위장·소산(疏散) 등의 ‘소극적 방공대책’으로, 공격용 무인기는 정상적인 국가방공체계 속의 ‘적극적 방공대책’으로 세분화해, 점적지역 전방에서부터 방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탐지·추적·타격자산의 배치 위치 및 운용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기체계만 다룰 게 아니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운용 요원들을 숙련된 간부급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경로에서 북한이 보유한 유사한 무인기를 활용한 추적 훈련과 사격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상급 지휘관 책임 아래 평소 비상대기, 장비 관리, 불시작전 준비태세 점검 등을 통한 작전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드론도 군사작전 임무 수행 때는 통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유사시 작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 ‘국가방공체계 평가 검토 위원회’(가칭)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방공포병사령부 전군 후 30여 년간 노출되지 않은 국가방공체계에 내재한 근본 문제들을 종합 진단하고, 도출된 보완 요소들은 모든 과제에 우선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본 내용은 문화일보 2023.1.17.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우선, 지역 방공을 맡고 있는 사단 예하 편제 방공부대를 제외한 수도권의 군단 예하 육군 방공단과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지휘통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방공작전 통제소 중심으로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찰 무인기는 과학기술과 소재의 발달로 인해 점차 소형화하므로 레이더 성능도 개량해야 하지만, 도시화한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 효과는 많이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무인기 대비 작전 개념도 포괄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촬영 등 정찰 활동을 방해하는 위장·소산(疏散) 등의 ‘소극적 방공대책’으로, 공격용 무인기는 정상적인 국가방공체계 속의 ‘적극적 방공대책’으로 세분화해, 점적지역 전방에서부터 방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탐지·추적·타격자산의 배치 위치 및 운용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기체계만 다룰 게 아니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운용 요원들을 숙련된 간부급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경로에서 북한이 보유한 유사한 무인기를 활용한 추적 훈련과 사격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상급 지휘관 책임 아래 평소 비상대기, 장비 관리, 불시작전 준비태세 점검 등을 통한 작전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드론도 군사작전 임무 수행 때는 통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유사시 작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 ‘국가방공체계 평가 검토 위원회’(가칭)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방공포병사령부 전군 후 30여 년간 노출되지 않은 국가방공체계에 내재한 근본 문제들을 종합 진단하고, 도출된 보완 요소들은 모든 과제에 우선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본 내용은 문화일보 2023.1.17.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우선, 지역 방공을 맡고 있는 사단 예하 편제 방공부대를 제외한 수도권의 군단 예하 육군 방공단과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지휘통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방공작전 통제소 중심으로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찰 무인기는 과학기술과 소재의 발달로 인해 점차 소형화하므로 레이더 성능도 개량해야 하지만, 도시화한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 효과는 많이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무인기 대비 작전 개념도 포괄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촬영 등 정찰 활동을 방해하는 위장·소산(疏散) 등의 ‘소극적 방공대책’으로, 공격용 무인기는 정상적인 국가방공체계 속의 ‘적극적 방공대책’으로 세분화해, 점적지역 전방에서부터 방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탐지·추적·타격자산의 배치 위치 및 운용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기체계만 다룰 게 아니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운용 요원들을 숙련된 간부급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경로에서 북한이 보유한 유사한 무인기를 활용한 추적 훈련과 사격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상급 지휘관 책임 아래 평소 비상대기, 장비 관리, 불시작전 준비태세 점검 등을 통한 작전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드론도 군사작전 임무 수행 때는 통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유사시 작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 ‘국가방공체계 평가 검토 위원회’(가칭)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방공포병사령부 전군 후 30여 년간 노출되지 않은 국가방공체계에 내재한 근본 문제들을 종합 진단하고, 도출된 보완 요소들은 모든 과제에 우선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본 내용은 문화일보 2023.1.17.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우선, 지역 방공을 맡고 있는 사단 예하 편제 방공부대를 제외한 수도권의 군단 예하 육군 방공단과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지휘통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방공작전 통제소 중심으로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감했던 강순권 중령 이야기

양춘식 (예 대령, 학사 56기)



필자는 현역시 겪었던 동기생 강순권 중령과 모든 비행단 장병의 감동적인 무용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1982년 4월 성남 비행장 통신대대장으로 부임하였을 때 이미 동기생 강순권 중령이 무장 대대장, 김종광 중령은 대통령 전용기 정비 대대장 그리고 이진현 중령이 군수처 보급 과장을 하고 있었지요. 전갑성 중령은 군수부 정비과장을 거치고 황성 군수부장으로 영전하였더군요.

1983년 3월경 공수특전단 훈련 장병을 태운 항공기가 성남 비행장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는데 항공기 사고 수습 때 장병들의 활약상과 무장 대대장 강순권 중령이 지휘관으로서 보여준 투철한 군인정신과 목숨 지키기를 마다하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용기와 결심으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발물

을 제거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직접 달려가 든 장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임무 수행을 위한 강순권 중령의 불굴의 의지와 영웅적인 노력을 여러분께 전하게 되어 자랑스롭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의 사심 없는 희생과 의무에 대한 확고한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산등성이에 추락한 항공기와 흩어진 시신을 수습하여 부대로 가져오기 위하여 단장님의 진두지휘하에 전 장병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날씨는 겨울이 채 가지도 않아 쌀쌀한 가운데 부슬비가 내리고 차가운 봄바람이 부는 으스스한 기분 나쁜 날씨가 이어지던 중이었습니다.

1. 사고 수습 첫날 이야기

사고 수습 첫날 전 장병은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이었지요.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마대에 나무막대를 두 개씩 고정하여 여

깨에 메고 흩어진 시신을 마대에 담아 길도 없는 비탈진 산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다 비에 젖은 땅에 미끌어지면 마대에 담긴 시신이 매고 있던 병사들의 얼굴과 가슴에 내려앉게 되기도 하고 아주 뒤집어 쓰우기도 했지요.

피범벅이 된 자기 몸을 돌볼 생각은 커녕 떨어진 시신을 찾아 다시 주워 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어린 병사들의 모습은 정말 용감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젖은 몸으로 힘차게 뛰어나며 전우애를 발휘하던 모습은 전 지휘관 참모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시에는 화장실 청소도 더러워 싫다 하고, 큰소리만 쳐도 겁먹던 일등병이 어찌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알고 능동적으로 날쌘돌이 처럼 움직이고 있는가?

솔직히 지휘관들은 평소 사병들의 행동을 보면 전쟁이 나면 제대로 총이나 들고 쓸 용기가 있을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시상황이 발생하니 그 행동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병들에 대한 교육 정도가 6.25 전쟁 때 군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식한 군인은 지시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군인은 모두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들로서 지휘관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아차리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전투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휘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용감함과 의무에 대한 헌신은 인간 정신의 놀라운 용기와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으로 지휘관들은 평시와 전시 병사들의 행동이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고 수습 둘째 날 강순권 중령 이야기

사고 이틀째 강순권 중령의 이야기는 긴장감과 위험, 영웅담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파손된 항공기를 기체와 잔해를 수거하여 부대로 가져오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항공기를 운행한 상태에서 볼 때는 별로 크지 않은 같으나 파손되어 해체된 상태에서는 크고 작은 기체 조각이 태산같이 많아집니다. 작은 파편 조각은 수거하기가 간단하나 동체는 몇 부분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전 장병이 산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무장대대 폭발물 처리 팀장과 부사관이 동체 분리를 위한 폭발작업을 하였는데 동체를 네 동강으로 나누기 위해 폭약을 세 군데에 장치하고 30분 후 30초 간격으로 순서대로 폭발하도록 시간을 조정해 놓고 지휘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전 장병은 폭파 개시 시간 30분 전부터 모두 긴장하고 1번 폭약이 터지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정해진 시간에 폭발될까? 아니면 불발될까? 초조한 순간이 조용히 흐르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1번이 터지는 소리가 났지요. 모두 와!!! 성공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역시 정확하게 30초 후 2번이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 와!!!하고 3번 폭약이 터지는 소리를 기다

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30초가 지나도 3번 폭약 터지는 소리가 나지 않자 모두 긴장하며 1초 후, 2초 후, 3초 후...하며 30분을 기다려도 터지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을 무릅쓰고 폭약과 도화선을 확인하려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정말 진퇴유곡의 상황이었습니다.

곧 해는 저무는데 기약 없이 기다릴 수가 없지요. 이 위험한 상황에서 폭발물 처리 팀장이 강순권 무장 대대장에게 혼자서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대장은 한 마디로 “팀장은 그냥 있거나 혼자 가서 확인하고 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단장님께 보고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팀장도 뒤따라가는 것을 모두가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3번 폭약의 도화선이 완전히 분리되었는지? 겨우 붙어있어 바람의 자극이라도 받으면 폭발을 할 것인지? 작업자가 폭약을 건드리면 터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마치 던져진 수류탄이 어느 순간 터질는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폭약이 장치된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려 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당시 강순권 대대장은 방탄조끼도 철모도 쓰지 않은 작업복에 작업모 차림이 었지요.

오로지 지휘관인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투철한 책임감과 강인한 군인정신의 발로에 의하여 표현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현장으로 떠나는 모습을 본 모든 장병은 “장하다 강순권 대대장! 용감한 강순권 중령!”이라고 소리쳐 부르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강순권 중령을 죽음의 전장으로 보내는 필자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착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지휘관이 나의 사후 56동 기생이라는 것이 모르지기 자랑스럽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장병들에게 “강순권 대대장은 저의 동기생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곧 현장에서 보내온 무전기의 소리는 “3번 폭약은 도화선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연결 작업을 하고 가겠습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본부로 돌아온 강순권 중령은 영웅으로 환호받았습니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을 보여준 그의 행동이 그 날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고 용감한 무장 대대장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군대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영웅주의의 빛나는 예입니다. 큰 위험과 불확실성의 순간에 진정한 리더가 나서서 생명을 구하고 성공을 보장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강순권 중령은 진정한 영웅이며 그의 행동은 앞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전후방에서 복무하는 현역 장병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이들의 군대 생활 3년은 자신을 썩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단련하고 숙성시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지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